

나이지리아 석유 부문과 예산 성과

Akinleye Oludiran University of Lagos, Department of Economics, Faculty of Social Sciences, Professor

주요내용

- ▶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원유수출국이며, 나이지리아 대부분의 수익이 원유 판매에서 창출되고 있음.
- ▶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나이지리아의 예산이 흑자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이 적자가 되는 등 나이지리아 경제는 원유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음.
- ▶ 나이지리아 경제는 세계 석유 시장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이러한 나이지리아 경제의 높은 석유 의존성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.
- ▶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석유 부문 수익증대, 인프라 부문의 민간참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.

1. 이슈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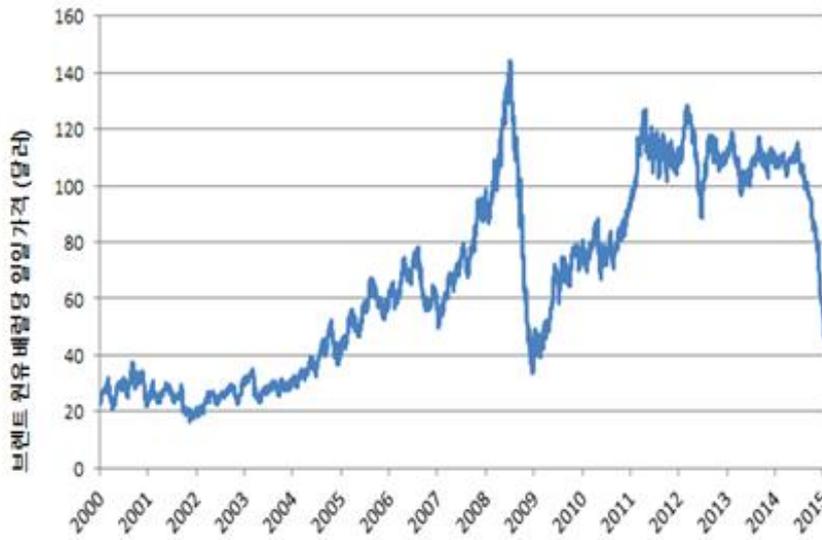
▶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원유수출국이며, 나이지리아 대부분의 수익이 원유 판매에서 창출되고 있음.

□ 원유가 상업적인 양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시기는 20세기 중반이었음.

- 내륙 및 해안 양쪽 모두에 유정이 위치해 있으며, 1970년대 이후로 나이지리아 정부 수입의 1/4 이상이 원유판매에서 창출됨.
- 안타깝게도 원유 수입(revenue)은 세계 석유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, 나이지리아 예산 책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.
 - 연간 예상 원유가를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임.
- 원유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,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예산과 성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.

그림 1. 원유가 동향 (2000-2015)

(단위: 달러)



자료원: LSE(런던 정치경제대학교) Blog

- [그림 1]의 데이터는 유가 변동을 보여주고 있음.
 - 2000년 20 달러에서 2006년 80 달러로 상승한 후 2007년에 50 달러로 하락하였음.
 - 2008년 140 달러로 다시 상승한 이후 2009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30 달러까지 폭락하였음.
 - 3년 후 유가가 회복되어 2011년 130 달러를 기록했으며, 2014년 하반기에 다시 하락하기 전까지 유가는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.
 - 이후 2016년 26 달러까지 폭락했으며, 2017년 중반인 현재 유가는 대략 50 달러임.
- 원유가 하락은 비단 예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.
 - 부족액은 외환보유고에서 충당되고, 중기적으로 지연된 원유가 회복은 장기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고갈시킴.
 - 마찬가지로, 물품 수입을 위한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가 제공하게 되고, 외환보유고의 고갈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며 점차 비싸게 외환조달이 이루어지도록 만들.
 - 예산 측면에서 급여가 지불되지 않고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좌절될 수 있음.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,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큰 거시 경제적 불균형 문제들이 유발될 것임.

2. 원인과 분석

▶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나이지리아의 예산이 흑자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이 적자가 되는 등 나이지리아 경제는 원유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음.

- 지난 40년간 경제학자들은 유가 변동과 거시경제 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.
 - 최근 원유 가격의 가파른 상승 추세는 국내외적으로 거시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음.
 - 나이지리아는 세계 6위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, 취약한 경제구조 및 높은 원유 의존도 때문에 세계 원유 시장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음.
- 나이지리아 경제는 외화수입을 위해 원유 수출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는데, 이것은 수출 수익의 95% 이상, 정부 수익의 대략 85%를 차지하고 있음.
 - 하지만 2008년 GDP 기여도는 17.85%에 불과함.
 - 원유 생산 급락은 수출에 영향을 미쳤으며, 2008년 말 세계 유가 급락은 나이지리아의 수익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음.
 - 연구결과에 따르면, 유가 충격은 나이지리아의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을 촉발시킴.
- 고유가는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주식시장 공황상태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결국 통화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.
 - 또한 이로 인해 금리가 오르고 경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음.
 -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의 급등 및 환율 변동은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간주됨.

표 2. 예산 성과 자료 (2015)

(단위 : 10억 나이라, %)

구분	2015년(예산)	2015년 9월(실제)	차이
수익	3,452.35	2,257.49	35% 미만
총지출	4,493.36	3,420.64	24% 미만
경상지출 (비부채)	2,593.21	1,817.97	30% 미만
자본 지출	557.00	194.77	65% 미만
자본 지출 대 총지출	12.4%	5.7%	54% 미만
경상지출 대 총지출	57.7%	53.2%	8% 미만
재정 적자	1,041.01	1,163.15	12% 초과
재정 적자/GDP	1.09%	0.99%	9% 미만

자료원: Budget Bulletin, PwC Nigeria

□ [표 1]의 자료는 국가예산과 실제지출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.

- 자료에 따르면, 자본지출에서 65%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, 이것은 인프라 격차가 큰 개발도상국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음.
- 따라서, 합일된 노력으로 예산을 준수하여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임.

그림 2. 원유가 동향 (2000-2015)

(단위: 배럴당 달러)



□ [그림 2]는 유가에 따른 GDP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.

- 유가가 낮을 때는 GDP 성장 역시 둔화되거나 마이너스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이러한 경향은 예산 준수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달성 능력에 영향을 미침.
- [그림 2]는 실제로 유가가 불안정했던 초기 일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.

□ 나이지리아 경제는 세계 석유 시장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나이지리아 경제의 높은 석유 의존성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.

□ 최근 정부는 원유 수익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음.

- 우선, 비석유 부문에서의 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증가시켰는데, 이것은 세금 징수 범위 및

효율성 제고, 농업부문에서의 밸류체인 개선, 해외투자 유치 노력, 관광 같은 외화 창출 부문 발굴 등에 집중하고 있음.

- 또한, 정부는 인프라 부문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.
 -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공케이스로 무르탈라 모하메드 국내선청사(Murtala Mohammed Airport Domestic Terminal)와 레키-에페 고속도로(Lekki-Epe expressway) 프로젝트가 있음.
 - 최근 민관 합작으로 제 4 대륙교(Fourth Mainland Bridge)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.
 - 그 밖의 다른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들 역시 정부와의 협력 속에 민간 기업의 투자가 가능함.
 - 친산업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비과세구역(Tax Free Corridors) 및 산업단지가 설립됨.
 - 이들은 지역경제의 변동성에서 자유로운 제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, 서부/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산업 니즈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마지막으로,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저유가 시기에 예산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적자 및 대출을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예산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음.
 - 하지만, 예산에서 경상지출은 여전히 불균형적으로 자본지출을 초과하고 있는데, 이는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. **EMERiCs**

참고문헌

- Akinleye S.O. (2017): Oil Price Volatility Effect on Infrastructure Spending in Nigeria. OPEC Energy Review Vol. 41(1): 71-90.
- Akinleye S.O. and S. Ekpo (2013): Oil Price Shock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Nigeria, Economía Mexicana Nueva Época Vol. XXII, número E2: 565-624.
- Akpan E.O. (2009): Oil Price Shocks and Nigeria's Macroeconomy.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CSAE Conference,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, 22nd- 24th March, Oxford.
- Aliyu S.U.R. (2009): Impact of Oil Price Shock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on Economic Growth in Nigeria: An Empirical Investigation". MPRA Paper No. 16319.
- Jin G. (2008): The Impact of Oil Price Shock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on Economic Growth: A Comparative Analysis for Russia Japan and China.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8, 11, 98-111.
- Mckillop A. (2004): Oil Prices, Economic Growth and World Oil Demand. Middle East Economic Survey XLVII, 35.

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